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고물가에 무게 단위로 판매하는 '킬로숍' 인기

"빈티지 옷 100g에 2900원입니다."
 최근 MZ세대의 실용적인 소비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곳이 있다. 이곳은 바로 '킬로숍'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빈티지 옷을 무게로 측정해 판매하는 곳이다.
 '킬로숍'은 서울·경기 수도권 위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엔 대구에도 새로 오픈하는 등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다.
 최근 의류·신발 가격이 31년 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킬로숍'이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옷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최근 유행하는 빈티지 의류를 구매할 수 있어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다. 안입는 옷을 가져가면 쿠폰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고 새로운 빈티지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현대판 아니바다 운동으로 보인다. 몇 년 전만 해도 본인의 개성을 찾는 마니아 층들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옷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빈티지숍을 많이 애용하는 추세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빈티지 킬로숍이 패션 피플들의 관광 코스일 정도로 이미 유명하다. 영국에서는 지역마다 팝업 이벤트 형식으로 킬로 세일이 열리고 있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행사장에 들어가 옷을 고를 수 있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이런 소비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실용적 소비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nackNews #킬로숍 #이주영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다른 이름 '내 가족처럼'

기고 | 
 Yeom Gun-cheol
 전 담양군보건소장

7개 분야다. 둘째, 은둔과 고립 가구는 미리 찾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다. 셋째, 계획은 행정이 하고 서비스는 민간 전문기관 38곳이 맡는 구조다. 결국 통합돌봄은 '돌봄에 돌봄'을 더했다.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약자 복지 정책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콜' (1660-2642)에 전화하면 된다. 그러면 동(洞)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정한다. 이어 전문인력이 대상자가 사는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한다. 시행 8개월 만에 23,000건의 의무 방문과 신청을 받아 8,800명을 돌봤다고 한다. 손뼉 칠만하다. 민선 8기 대표 복지시책이 어려운 시민 삶에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시작 단계라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협업에 소통이 더 필요하다. 현장 경험이 부족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대상자-인력-예산 같은 복지서비스 총량 파악이 어렵다. 등등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시와 5개 구청이 현장 과제를 찾고 또 찾는 게 먼저다. 그 다음 리더는 내 일처럼 여기고 나선다. 애로사항 반(半)은 해결될 것이

다. 담당자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중요하다. 담당자는 돌봄 체계를 만들며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상자 욕구에 맞춰 감성노동과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 돌봄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이들에 달려있다. 그런 까닭에 담당자가 만족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와 예산 지원, 참여자 협업, 고충 같은 일에 공감하고 지원해야 한다.

통합돌봄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내 가족처럼'이 아닐까? 나를 내 가족처럼 보듬는 일은 쉬우면서 못하고, 단순하지만 어렵다. 상대방 말과 심정을 잘 듣고, 그 입장에 서게 되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돌봄 대상자를 내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도움이 절실한 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복지정책은 앞에서부터 있었다. 무엇이든 불렀던 열쇠는 '변화'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일, 바로 행정의 몫이다. 오늘도 약자 복지를 앞서 고민하는 담당자모두에게 진심으로 애쓰는 말을 하고 싶다. 아울러 어느 복지 정책보다 넓고 두터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2022년 8월 경기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평소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사는 곳을 옮겼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같은 복지 서비스를 상담한 적도 없다.
 이렇다 보니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 맹점이 드러났다.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다. 어디 딱한 사정이 이뿐이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병원과 요양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지낼 수는 없을까? 광주광역시에는 근본 해법을 찾아 나섰다.
 광주시는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체 97개 동에서 실행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 '광주돌봄'을 새로 만들었다. 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지원, 주거편의와 일시보호 같은



기고 | Oh Young-jin 위즈온 협동조합 이사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필자가 설립한 '위즈온 협동조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직원 중 절반 이상을 장애인을 채용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근육세포가 자라지 않고 파괴되는 근이영양증이라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어렵게 IT 기업에 경력직 개발자로 입사했으나 갑작스럽게 어느 날 상사로부터 회사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물론 그 당시 상사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 대상자 1순위'라는 것쯤은 직장 동료들과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수차례 해왔던 터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구조조정 대상자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책임을 정리하면서 문득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는 현실이 역울했다. 유년시절부터 장애를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지만 개인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듬해 한번더 용기를 내기로 했다. IT 경력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모여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창업을 했다. 그게 현재 '위즈온 협동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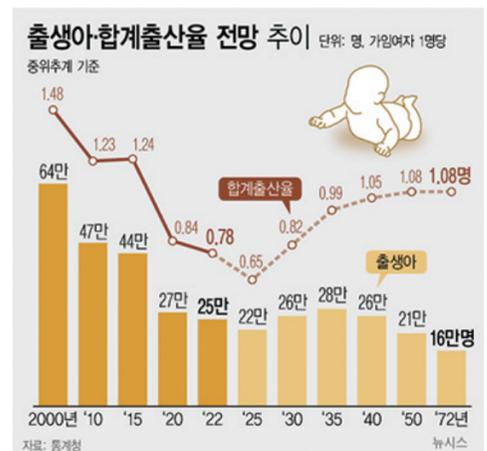
필자와 장애인들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을 갖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와 입·간판 경사로, 저상버스 탑승 요청 앱(APP) 서비스 등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돌이켜보면 지역 내에서 지원을 받아왔기에 창업한 지 12년 동안 탄탄하게 기업을 운영해 올 수 있었다.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위기브'라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광주 동구에서 추진 중인 고향사랑 기금사업 중 발달장애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E.T 야구단'의 존재위기 소식을 접하게 됐다. 지역은 다르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과거의 내가 겹쳐 보였다. 당시 함께해 준 사람들이 많았고 응원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

다.
 고향사랑 기금사업인 '발달장애인 청소년 E.T 야구단' 존재위기는 개인들이 감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누군가는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통해 지정기부를 알리고 E.T 야구단의 운영과 발달장애인 야구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마음이 고마웠다. 지정기부의 최고액은 500만원이었다. 선뜻 기부하기에는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흔쾌히 지정기부를 결정했다. 필자의 마음과 메시지가 닿은 것일까.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 측에서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고 '한번 만나보고 응원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광주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보기도 쉽지 않다. 그런 탓에 장애인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쉽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장애인을 쉽게 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달장애인 E.T 야구단'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힘이 된다. E.T 야구단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광주 동구와 같이 다른 지자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제2·3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 상당 무료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필자가 광주 동구에 최고 액수인 500만 원을 기부하니 150만원 상당의 무료 답례품을 받을 수 있었다. 수십여 가지 이색 답례품 중 소고기료 받으니 지인들에게 인심을 후하게 쓸 수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광주 동구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길 희망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